

기후공시 의무화 흐름의 초석, 글로벌 기업·금융권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 확산 동향

1. 배경 및 필요성	01
2.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	03
(1)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(TCFD)	03
(2)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(SBTi)	05
(3)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(CDP)	06
3. 시사점	07
참고문헌	08



1. 배경 및 필요성

●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 및 실질적인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, 국제사회에서 개별 감축 주체인 **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적 책임 촉구**

○ **(기업참여의 중요성)** 총탄소배출량 및 전력소비량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*이 막대한 만큼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

* 사우디아람코, 셰브론 등 전 세계 20개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196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체 탄소배출의 30% 이상(한겨레, '21.3.12)

○ **(국제사회의 요구)** 정부, 시민단체, 금융기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기업을 향한 기후 행동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, 기업가치 평가지표 중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평가지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

▶ **(정부)** 탄소배출권거래제, 탄소세 등 탄소 관련 제도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요구

▶ **(시민단체)** 글로벌 이니셔티브(RE100, SBTi), 글로벌 캠페인(Fossil Free) 등을 통해 기업에 책임감 있는 기후행동 요구

[RE100 (100% Renewable Electricity), 국내에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 글로벌 이니셔티브]

- **(개요)**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
- **(주요 내용)** 늦어도 2050년까지 기업 자체 생산 전력 및 외부에서 공급받는 전력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(2030년까지 최소 60%, 2040년까지 90% 도달 필요)
 - 다국적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(Carbon Disclosure Project)의 주도로 2014년 출범
 - 가입대상은 연간 100G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'영향력 있는' 글로벌 기업
 - 참여기업은 CDP의 기술 기준(Technical Criteria)에 따라 매년 실적 보고서 제출 필수
- **(동향)** 참여 기업들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 연도는 2050년에서 20년 앞당긴 2030년이며, 애플 등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협력업체까지 확대 요구
- **(참여 현황)** 전 세계 401개사, 우리나라는 30개사 참여 중('23.4.15.)

▶ **(투자자)** 기후변화를 장기 재무적 이익의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고, 기업에 저탄소 사업으로의 전환 요구

● 이에 따라, 기업권에서도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**기후변화대응 자발적 이니셔티브(Initiative)**가 확산되었고, 더 나아가 최근에는 그린 스완(Green Swan)*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 세계 **기후공시 의무화 흐름**

* 그린 스완(Green Swan)이란, 기후위기로 인하여 심각한 금융·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

○ **(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이니셔티브 확산)** 기업·금융권이 기후 위기를 중대한 재무적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이니셔티브 가입 규모 급성장, 기후 대응 관련 경영활동과 탄소배출량을 공시하거나 탄소 감축을 위한 서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 급증

○ **(그린 스완의 등장에 대한 경고)** 국제결제은행(BIS), 국제통화기금(IMF) 등 금융 관련 국제기구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파괴적이고 수습이 불가능한 위기, 즉 그린 스완(The green swan)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

○ **(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흐름)** 그린 스완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이니셔티브가 자발적 참여 수준을 넘어 최근에는 기후변화 공시 의무화로 확대되며 탄소 배출 저감 노력 박차

- 한편, 국내에서는 (1) 수출 중심인 산업 전반에 해외 협력업체의 **재생에너지 확대 압력** 증가 (2) **제조업(에너지 다소비업종) 중심의 산업구조** 특성상 탄소 배출 감축 취약 (3) **재생에너지 공급량 및 조달 기반 미흡** 등의 어려움이 주요 이슈로 부상
 - **(새로운 무역 장벽)** 주요 글로벌 기업이 국내 협력업체까지 참여를 요구하고,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이니셔티브의 역할이 강화되며,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가 도입되는 등 기후통상 여건 변화
 - **(제조업·수출 중심 산업 구조)** 우리나라는 철강, 화학, 시멘트 등 제조업이 전체 산업의 28.4%로, 다른 주요국*에 비해 월등히 높아 탈탄소경제 관점에서 산업부문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이 난제
 - * 주요국 산업구조 중 제조업 비중: EU 16.4%, 영국 9.4%, 미국 11.0%, 중국 29.3%, 일본 20.3% (산업연구원 IHS, '19)
 - **(재생에너지 조달 기반 미흡)** 국제사회는 '한국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지역'이라고 비난*하는 한편, 국내 기업들은 정부에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
 - * 글로벌 RE100 주관단체인 The Climate Group은 한국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요구하며, 한국의 RE100 가입 기업들은 필요한 전력의 2% 남짓만 재생에너지로 구하고 있다고 지적

- 본 브리프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RE100 이외에 **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의 개요 및 현황과 주요 내용을 정리**하고 국내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**정책적 시사점을 도출**하고자 함

2. 기업·금융권의 기후변화 대응 자발적 이니셔티브

■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(Task Force on Climate-Related Financial Disclosures, TCFD)

● (개요) TCFD는 공신력 있는 기후변화 재무 정보 공시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태스크포스로 기업들이 금융시장 내 기후변화 관련 기회 및 위험을 파악·공시하고, 경영활동 및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권고

○ (배경) 기후변화가 기업·금융기관의 재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관련 정보의 부족에 따른 금융위기 우려 대두, 이에 G20이 금융안정위원회(FSB)*의 금융섹터에 기후변화관련 이슈 반영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'15년 TCFD 설립

* 금융안정위원회(Financial Stability Board, FSB): 국제 금융규제 및 감독 역할 강화를 위해 2009년 발족된 G20 산하 국제기구

○ (목적) 기업·금융기관이 주류재무보고서에 표준화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,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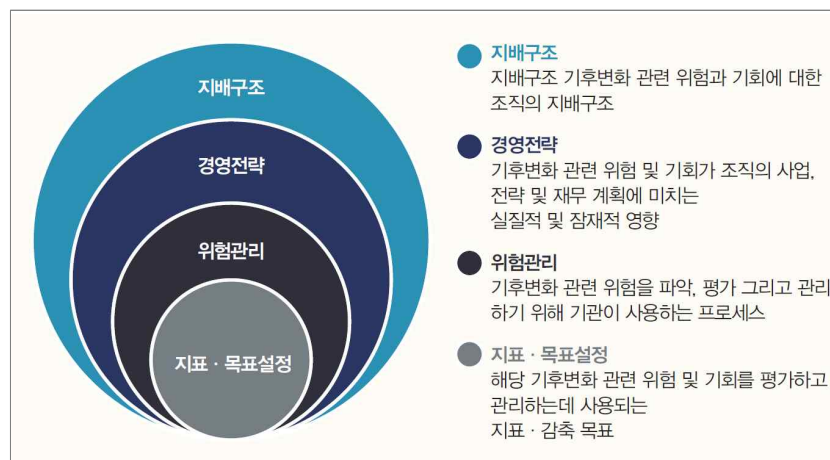
○ (의의) TCFD 권고안은 국내외 기후변화 공시의 기준이자,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공시 의무화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, 향후 재무 및 비재무적 공시 통합 추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
▶ 국제회계기준재단(IFRS)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(ISSB)를 설립하여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을 결정하였고, 그 중에서 기후 관련 공시는 TCFD 권고안을 토대로 공개초안 마련('22.3)

● (주요내용)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한 2°C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공개하고, 공개의 핵심 요소를 4대 영역으로 구분(지배구조, 경영전략, 위험관리, 지표·감축목표 설정)하여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설명할 것을 권고

○ 위험(Risk)은 물리적 리스크(Physical Risk)와 전환 리스크(Transition Risk)로 구분하고,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 등으로 인하여 전환 리스크가 올라갈수록 물리적 리스크는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

▶ (물리적 리스크) 기후변화가 미치는 물리적 영향으로, 단기적 위험(Acute risk, 태풍·집중호우 등)과 장기적 위험(Chronic risk, 해수면·평균기온 상승 등)으로 분류

▶ (전환 리스크)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(정책·사회·경제·시장 변화) 중 발생하는 위험



< TCFD 권고안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의 핵심 요소 (WWF, '18) >

● **(현황)** 2017년 TCFD 권고안 공개 이후, 적용 지침서 및 관련 문서들을 지속적으로 개정·발간 중이며, 현재까지 **101개국 4,000개 이상의 기관이 TCFD에 대한 지지를 선언***

* "TCFD지지 선언이란, TCFD와 그 권고안을 지지함으로써 TCFD 권고안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"(한국사회 책임투자포럼, '22)

● EU, 영국, 일본 등 주요국은 자체적으로 지침서, 규정안을 개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TCFD 적용을 독려하고 있고, 현재 G20 국가*를 중심으로 TCFD를 기반으로 한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추세

* (일본) TCFD Guidance 발간, TCFD 컨소시엄 발족 등 TCFD 연계 공시 매우 활발
(영국) TCFD 권고를 2025년부터 의무 적용 계획

● 한국은 정부기관 중 최초로 TCFD 지지를 선언('20.5)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총 106개 기관이 TCFD Supporters에 동참('22. 6. 기준/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, '22)하고 있으며, TCFD 연계 보고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'22년 7월 기준으로 총 123개(법무법인 지평, '23)



< TCFD지지 현황 (TCFD 홈페이지) >

● **(주요 이슈)** 국내에서는 TCFD 제도 기반 구축 및 금융기관·기업 대응 지원 목적으로 **'한국TCFD 얼라이언스'가 출범('22)**하였으나 여전히 TCFD 관련 **제도 기반 및 대응 수준이 미비**

● 법무법인 지평은 TCFD 연계 분석 보고서에서 **한국 기업들의 TCFD 연계공시도 특히 '전략' 및 '위험관리' 부문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('23)**

■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(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, SBTi)

- (개요)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니셔티브(SBTi)는 파리기후협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·금융기관이 과학 기반으로(Science-based)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, 전문가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'15년 세계자연기금,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, 세계자원연구소, 유엔 글로벌 콤팩트가 공동 설립
- (배경)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°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.5°C 이하로 제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기업들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필요
- (의의) 최초의 글로벌 과학기반 표준이자, 기업의 감축목표를 평가하는 세계 최대 검증기관
- (주요내용) 기업 기후 목표의 적합성을 심사 및 승인하고, 건물, 시멘트, 정보통신기술(ICT) 등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목표 설정 방법론 및 최소 목표 수준 등을 제시
 - SBTi에 가입한 기업은 필수적으로 2년 이내에 단기(Near-Term) 및 장기(Long-Term) 온실가스배출감축 목표를 설정·공개해야 하며, 탄소중립(Net-zero) 목표도 설정 가능
 - ▶ (단기목표) 5~10년 이내 온실가스감축목표 1.5°C 경로 감축 (Scope 1+2)
 - ▶ (장기목표) 2050년 이전 온실가스감축목표(전력 부문은 2040년 이전) 1.5°C 경로 감축 (Scope 1+2+3)
 - ▶ (탄소중립선언) 2050년 이전 1.5°C 상승 제한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 목표 선언
 - ※ Scope 1(온실가스 직접 배출량), Scope 2(전력사용 등 간접 배출량), Scope 3(Scope 1·2를 제외하고 밸류체인 전체에서 발생하는 외부 배출량)
 - 단기 GHG 배출 목표는 Scope 1과 2 배출량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나, 기업의 Scope 3 배출량이 Scope 1, 2, 3 배출량의 총합의 40% 이상이거나 천연가스 및 기타 화석연료 제품 관련 기업은 Scope 3 목표 수립 필수
- (현황) 설립 이후부터 가입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애플(Apple), 폭스바겐(Volkswagen) 등 현재 4,799개('23. 4. 기준)의 기업이 동참, 이 중 2,468개 기업의 목표가 공식 검증됐고, 1,748개 기업이 탄소 중립(Net-zero) 서약
 - '20년 이후 국내 참여 기업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, 신한금융그룹, SK증권 등 총 40개 기업('23.4월 기준)이 가입 및 목표를 선언
- (주요 이슈)
 - 2022년 6월부터는 1.5°C로 조정된 목표만 수용함에 따라, 2°C 경로 감축 목표를 기제출한 기업의 경우 초기 검증 후 5년 이내에 1.5°C 경로로 목표를 조정하여 재제출 필요
 - SBTi가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 중 배출권을 통한 탄소 상쇄는 총배출량의 10%까지만 인정하기로 한 점은 기업에게 순배출량을 대폭 저감해야 하는 도전 과제이며, 자발적 탄소 시장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존재
 - 국내 기업의 경우 고객 또는 거래처의 압력으로 인해 SBTi에 가입한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한 한편, 일부 중소기업은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가입 유보

■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(Carbon Disclosure Project, CDP)

- **(개요)** 전 세계 약 90개국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로, 기업이 탄소경영 전략, 온실가스 배출 현황, 기후 관련 위기와 기회,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**자발적 기후공시 국제 표준**
 - **(의의)** 환경정보공개 관련 세계 최대 자발적 플랫폼으로서, 투자자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어 '03년부터 지난 20여 년간 기후공시 주도
- **(주요내용)** 전 세계 투자 기관의 위임을 받은 CDP가 기업에 환경정보를 요청하고,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활동 및 인게이지먼트 등 의사결정 과정에 CDP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**기업의 환경정보 원문, 데이터 분석 결과, 인게이지먼트 기회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**
 - 기후변화, 물, 산림, 생물다양성, 플라스틱 등 환경 이슈 대응 관련 정보를 기업에게 공개 요청
 - ▶ 최근 생물다양성, 플라스틱 등 주요 글로벌 아젠다를 반영하여 관련 정보공개 질의서를 추가
 - 글로벌 기업의 위임을 받아 협력사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프로그램(Supply Chain Program)도 운영 중이며 286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(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, '23)
 - RE100, SBTi 가입 기업은 각각 CDP에 재생에너지 보고, 감축목표 공시
- **(현황)** '22년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**약 18,73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해 투자자에, 약 16,000개 이상의 기업이 고객사에게 환경 정보 공개**(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, '23)
 - '22년, 기업들에게 CDP를 통한 환경 정보 공개를 요구한 투자자들의 운용자산은 약 136조 US달러 이상
 - CDP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후 관련 정보 공개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TCFD를 반영('18~)하고, IFRS S2* 기후관련 공시기준을 CDP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에 통합('24~)하는 등의 노력 중
 - * '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'의 공개초안은 일반 요구사항(IFRS S1)과 기후 관련 공시(IFRS S2)로 구성
 -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도 높아 특히 '21~'22년도 사이에는 참여사가 약 두 배 증가하였고, 현재는 약 180개의 국내기업이 참여 중
 - ▶ Supply Chain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하면 약 426개 국내 기업이 CDP를 통해 정보 공개
- **(주요 이슈)** 최근 **금융배출량*** 관리를 통해 금융리스크를 줄여나가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나, 금융 배출량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대다수 금융기관은 **산업 평균 배출량으로 대체하여 산정하는 문제 존재**
 - * 금융배출량이란, 금융기관이 금융활동(투자·대출)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
 - CDP는 해당 이슈를 해결하고자, 투자대상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한 Banks Program과 Private Market Program을 개발, '23년부터 도입 예정(CDP, '22)

3. 시사점

- 최근 기업들이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 통상 압력 및 기후공시 의무화 흐름에 직면했으며, 기후변화대응 이니셔티브는 한층 진화함에 따라 **풍부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의 주요 이슈로 부상**
 - (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의 변화) 2°C → 1.5°C 경로로 목표를 조정, Scope 3 배출량 목표 수립 요구 등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, 금융배출량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 확보 시작
 - (기후공시 의무화 흐름) 국내에서도 202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 확대 예정
 - (재생에너지 여건 미흡)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탈탄소 경제체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, 국내 재생에너지 제도 효율성 및 공급량이 미흡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제동
- 국내 기업들이 탈탄소 경제체제 하에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고, **넷제로 목표 설정** 단계를 넘어 **실제 이행**할 수 있도록 **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** 및 관련 **기술도입 활성화 방안 마련** 필요
 - (재생에너지 기반 정비) 세액공제 등 제도 정비,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국가전략적 확대 필요
 - (기업의 넷제로 이행 지원) 기업이 추적·계산이 어려운 Scope 3 배출량에 대한 목표 설정 및 관련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및 산업 부문 간, 공급 업체와의 협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
 - (재생에너지 기술도입 활성화) 정부는 세계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비해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보급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, 산업계에서는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등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

[참고 문헌]

1. IT World, 순환 경제와 집단지성을 통한 '스코프 3' 감축 전략, 2022년 10월 6일 수정, 2023년 4월 18일 접속, <https://www.itworld.co.kr/news/258604#csidxd6f360323ea345595464c35899fe099>
2. 삼성SDS, 스코프 3 감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, 2022년 11월 2일 수정, 2023년 4월 18일 접속, https://www.samsungsds.com/kr/insights/scope3_emissions.html
3. 법무법인 지평, 지평 기업경영연구소, '한국 TCFD Status Report 2022' 보고서 발간, 2023년 3월 28일 수정, 2023년 4월 4일 접속, https://www.jipyong.com/kr/csr/csr_post.php?seq=5888&page=3&value=&type=&nownum=5
4. 한겨레, 10대 그룹서 국가 온실가스 36% 배출...한전 포함하면 64%, 2021년 12월 27일 수정, 2023년 4월 10일 접속, <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environment/1016677.html>
5. 한겨레, 지구촌 온실가스 배출, 가장 큰 책임 기업은?, 2021년 3월 12일 수정, 2023년 4월 10일 접속, https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economy_general/986520.html
6.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,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라, 2023. 2.
7.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, 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세미나 자료집, 2022년 6월 27일 수정, 2023년 4월 4일 접속, <https://kosif.org/tcfd/?vid=2>.
8. CDP, 2023년 4월 6일 인용, <https://www.cdp.net/en>
9. CDP, CDP Cities, States and Regions Open Data Portal, 2023년 4월 6일 인용, <https://data.cdp.net/>
10. CDP, Introduction to CDP Capital markets, 2022. 12.
11. 그린포스트코리아, 'ESG 공시 기준' ISSB 지속가능성 공시, 내년 본격 시행, 2023년 2월 6일 수정, 2023년 4월 4일 접속, <http://www.greenpostkorea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5431>
12. CDP, How companies can take action, 2023년 4월 6일 접속, <https://www.cdp.net/en/companies>
13. Science Based Targets, 2023년 3월 30일 수정, 2023년 4월 4일 접속, <https://sciencebasedtargets.org/companies-taking-action>
14. TCFD, 2023년 4월 18일 인용, <https://www.fsb-tcfd.org/>
15. WWF, TCFD가 한국 기업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?, 2018. 12.
16. WWF et al., 2030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, 2023. 03.

[저자]

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 김인애 / Tel. 042-879-3844 / E-mail. inaekim@kier.re.kr

※ 본 "CT Brief"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(연구진)의 견해이며,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.